

온돌과 부뚜막의 고찰

주 남 철 (朱 南 哲)

고려대학교 교수(高麗大學校 教授)

1. 머 리 말

한국전통건축의 취사와 난방시설에 관한 연구는 아직까지 복합적으로 고찰된 바 없다. 다만 그간 전통적인 난방법이 온돌이 주류를 이룸으로서 이에 대한 여러사람의 고찰이 있었고, 또 한국전통주거건축의 주방공간을 연구하는 가운데 이에 대한 연구내용이 발표된바 있다. 그러나 이들 둘을 복합적으로 고찰, 정리한 것은 별로 없어, 금번 이들을 연구의 주제로 삼고, 또한 그간 기발표된 온돌에 관한 연구중에서 미흡한 부분, 불분명한 사항에 대하여 다시 논함으로서 보완, 재고 하려는 것이다. 이로서 이 연구는 한국의 식생활문화와 접목 하게되고, 또 한국 전통건축설비연구의 일역을 담당하며, 한국전통생활사의 일부를 밝히는 중요한 의의를 갖게 되는 것이다.

2. 선사시대의 취사와 난방

한반도를 중심으로 사람이 살기 시작한 것은 구석기시대부터라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며, 또한 이들 구석기인들이 중석기시대를 거쳐 신석기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중석기 문화기의 단절후에, 새로이 신석기문화가 시작된다는 지금까지의 상황도 잘 알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현 한국인의 조상으로부터 시작되는 한국주거사, 나아가 건축사의 시작은 당연히 신석기시대부터 고찰하여야 할 것이다.

1945년 이후 한반도의 곳곳에서 많은 신석기시대의 주거지들이 발굴 조사보고 되었고, 이들의 내용을 살펴보면 공통적인 것으로 다음 몇가지를 들 수 있다.

- ① 주거지(住居址)는 지표면 아래를 파고 들어가 집의 바닥을 형성하고 집바닥에 기둥을 세워, 이위에 지표면으로부터 서까래들을 걸치고, 나뭇가지, 풀등으로 엮고 흙이나 풀로 덮은 움집(수용주거(竪穴住居)) 이 있다.
- ② 집의 평면은 원형 또는 네모를 죽인 방형이나 장방형이었다.
- ③ 바닥의 중앙 또는 중앙에 가까운 곳에는 하나의 화덕자리(로지(爐址))가 있다.
- ④ 화덕자리는 냇돌이나, 판석으로 주위를 돌리거나, 또는 진흙으로 뚝을 쌓았다.

⑤ 저장공(貯藏孔)은 토기의 밑둥이를 잘라 (로지(爐址))곁에 거꾸로 뚫어 만들었다.

이상과 같은 사항들이 신석기시대 주거지의 일반적인 것들인바, 이를 바탕으로 생각할 때 신석기시대인들은 취사용의 불과 난방용의 불이 같은 것이 있고, 나아가 야간의 조명용도 겸한것이라 추측할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특수한 것으로 BC5,000~4,000년경으로 추정되는 두만강 유역의 서포항유적 제1기층의 집자리9호¹⁾는 타원형에 가까운 72㎡에 가까운 큰 집인데 길이는 1m이상이나 된다.

특히 이 움의 바닥은 강자갈섞인 흙을 바닥에 깔고, 불을 지피 바닥을 굳게 하였으며, 5개의 화덕자리(로지(爐址))가 있는 것이 주목된다.

남북 장축방향을 따라 길게 늘어선 5개의 화덕자리에서 양끝 두 개는 돌로 둘레를 둘러싸고, 가운데 3개는 바닥에 자갈만을 깔았었다고 한다.

이에 대한 해석²⁾은 양끝 화덕자리는 연기를 피우면서 불을 지핀것이고, 북편의 3개는 연기가 없어진 다음 불씨들을 옮겨 놓아 일종의 《화로》로 이용하였다고 추측하는 것이다. 이는 가운데 세개는 불씨들을 담기에 좋은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상의 것으로 취사용과 난방용의 분리를 볼수 있으나, 왜 이것이 그후 많은 신석기 유적의 집자리에서 나타나지 않는가 하는 것이다.

혹 이 집자리가 다른 집자리보다 월등히 큼으로서 난방용만의 화덕자리를 필요로 한 것이고, 이로서 신석기시대의 사람들의 지혜의 수준은 이미 분리 사용할 수 있었던 단계에 있었음을 말해 준다고 할 수 있다.

다음은 청동기시대의 유적으로는 함경북도 회령오동(會寧五洞), 나진 초도(草島), 평북 강계시 공책동(江界市 公責洞) 의주군 미송리(美松里)등이 있고 남한에서는 여주군 혼암리(欣岩里),과주군 옥석리(玉石里),서울 특별시 강동구 가락동(可樂洞) 등에 분포되어 있다. 이 시대는 김원룡(金元龍)에 의하면 BC1,000~300년경인데 북한에서 BC1,500년경부터로 보고 있다.

이시대 집자리의 공통적인 점들은 다음과 같다.

① 평면은 장방형의 대부분이며, 기둥구멍은 벽선을 따라 있는 것도 있고, 또 전혀 없는 것도 있다.

② 화덕자리는 중앙에서 벽쪽으로 치우쳐 지며, 두개 있는 곳도 많이 있으며, 또 전혀 없는것도 있다.

③ 저장움이 등장하며, 저장공은 사라진다.

④ 수혈의 깊이가 낮아진다.

이러한 여러상황을 지닌 대표적인 것으로 함경북도 회령 오동(五洞) 제2기의 8호 집자리를 들수 있는데³⁾ 이는 8,4m×6.5m 장방형평면으로 움깊이 0.75m, 움바닥은 진흙을 깔았고 화덕자리는 동남에 1개 서북에 1개 있으며, 기둥구멍은 장축을 따라 4줄로 130여개 있었다.

이 집자리에서 주목할 것은 화덕자리로서 동남쪽의 것은 방바닥을 파고 그 둘레를 막돌 8개로 둘러싼것이고, 서북쪽 것은 방바닥에 진흙으로 둘러 싸인것인데 동남쪽 것에만 재가 차 있는 것으로 보아 항상 불을 피우던 즉 취사용 화덕이고, 불피운 흔적만 있는 서북쪽 것은 추운 겨울에만 불을 지핀 난방용의 것이라 추측되는 것이다.

1) 우리나라 원시집자리에 관한 연구, pp6-7, 1975.

2) Op cit, p112.

3) Op cit, p70.

농경생활로 마을이 형성되고 정착생활을 하게 됨으로서 취사와 난방의 두기능을 분화하게 된것임을 잘 들어내주는 집자리라 생각되는 것이다.

한편 화덕자리가 들어나지 않은 집자리는 취사용 화덕이 집 밖에 있었다고 생각되는데 이때 겨울철을 지내기위한 난방시설이 없었던것에 의문이 제기되나 현재로서는 난방없이 털가죽같은 것을 덮고 지낸것이라 생각할 수 밖에 없다. 아니면 토기에 불씨를 담은 원시적 화로같은 것이 있었던 것으로 추측되는 것이다. 또 혹 화덕자리가 간소한 구조임으로 여름에는 없애고, 겨울에는 만들어 사용하였는지도 모르며, 또는 바닥 아무곳에고 불을 지켰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하여간 취사용과 난방용의 분리는 분명한 것임을 알수 있다.

세죽리 10호 주거지에서는 화덕자리가 북벽에 위치하고, 세면에 돌을 둘러고, 한곳을 비워 놓았는데 이 비워놓은 것이 북쪽인 점으로 보아 하나의 화덕으로 취사와 난방을 겸한 것이라기 보다 취사전용의 성격이 강한 것이라 할 수 있음을 지적할 수 있다.

지금까지의 고찰 이외에 꼭 언급하여야 할 것은 함경북도 웅기 송평동(雄基 松坪洞)에서 온돌식으로 판석(板石)을 세워서 불고래를 만들고 그위에 판석(板石)을 덮어 바닥으로 한 것이 있었⁴⁾다고 하였으나, 그간 이 유적에 대한 보고서조차 출간된적이 없으며, 모든 것의 근거가 불분명함으로서 이를 선사시대의 온돌주거지로 받아드릴 수 없었다는 것이 그 상론이었다.

그러나 최근 장경호⁵⁾(張慶浩)가 이미 지적 인용한 강원도 춘천시 중도유적(江原道 春川市 中島遺蹟) 제1호 주거지는 주목되는 것이다. 로지(爐址)와 숯자리 그리고 굴뚝시설로 추정되는 진흙구조물이 중앙부(中央部)를 비스듬히 가로 지르면서 연결이 된 것 같다는 것이다. 동벽(東壁)에 진흙대(帶)의 폭이 1.5m이고 이것이 벽의 어깨상면에 나타난 크기는 폭 70cm~75cm, 길이 1.5m, 높이 30cm가량 되었다. 또 동벽에 붙은 진흙더미속에서 화구(火口)와 같은 터널이 나타났는데 높이 23cm, 폭 50cm이고 그 속에는 2.5cm두께의 나무판자가 막혀 있고 아래에는 다시 굵은 재목(材木)을 가로 질러 놓았다... 이 진흙 구조물이 주거지와 연결되는 굴뚝같은 시설로 이용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하였다.

같은 제2호 주거지에서는 중앙 북쪽에 치우쳐 타원형 로지(爐址)(1.7m×1.4m)가 있는데 바닥에 강돌을 깔고 그 위에 점토를 발랐으며 노지 주위에 16cm정도 두께로 점토대를 돌렸으며 북쪽에 길이 77cm, 두께 4cm~10cm, 높이 20cm의 긴 판석(板石)을 북쪽으로 60° 정도 경사지게 세워 놓아, 바람막이 역할을 한 듯 하었다고 한다⁶⁾.

장경호는 이들 유적에서 취사용과 난방용의 분리와, 중앙것은 난방용이고 치우친 것은 취사용으로 생각하였고, 북쪽 큰 돌을 세워놓은 것이 잔열(殘熱)을 이용(利用)하기 위한 시설로 추정한다 있다.

철기시대는 BC300년경부터 기원 전후로서 청동기(靑銅器)(동검(銅劍), 동과(銅戈), 동모(銅矛)등)와 창, 도끼, 삽 등의 철기, 아가리띠토기들을 사용하던 시기로서 이 시대의 주거지(住居址)였던 수원 서둔동 주거지⁷⁾(水原 西屯洞 住居址)에서는 “ㄱ자형 구들”의 유적이 발견되어 주목된다.

4) 金載元 韓國史 古代編 震澗學會 乙酉文化社, 1950

5) ① 張慶浩, “우리나라 煖房施設인 溫埃(구들)形成에 對한 研究” 「考古美術」 NO165. 韓國美術史學會, 1985

② 國立中央博物館, 中島, 국립박물관 고적조사보고, 제12책, 1980.

6) Op cit,

7) 장경호, Op cit,

즉 북벽에 1번이 약30cm의 얇은 흙벽돌을 30cm 간격으로 양측에 세우고, 그위에 똑같은 크기의 벽돌을 덮어서 방(方)30cm크기의 터널형(形)의 구들을 구축하고 서단(西端)에서 다시 서벽(西壁)을 따라 굽어져 아궁이를 만들고 동단(東端)에서 벽을 붙여 굴뚝을 높이 쌓아 지붕위로 뽑아 올렸었다고 보인다. 구들의 아궁이쪽은 논흙을 사용하고 구들쪽은 진흙을 사용하였는데 불고래 내부는 흙이 소성(燒成)되어 토기(土器)처럼 단단했고 굴뚝이 수혈 내부(竪穴內部)로 넘어져 있었다고 한다.

또 북창(北倉) 대평리(大平里) 주거지(住居址)⁸⁾에서는 ㄱ자로 꺾인 두고래의 구들이 복단에 화구(火口)를 두고 남쪽으로 내려오다가 ㄱ자로 꺾이어 동쪽으로 연결되면서 1줄로 되어 있는 것이 조사 발굴되었다.

평안북도(平安北道) 로남리 주거지⁹⁾는 BC100년경의 유적으로 동서 13m, 남북 10m 되는 큰 방형주거지(方形住居址)로서 동서 양쪽에 ㄱ자형 구들이 하나씩 발굴되었다

동쪽것은 동서로 놓인 부분이 길이 3m, 폭 30cm, 높이 30cm이며 남북으로 놓인 부분의 길이 50cm, 폭 40cm, 높이 30cm가량 되었고 아궁이는 남쪽 끝에 있고 맨바닥에 그대로 불을 지핀듯하여 서쪽끝이 막혀있고 그보다 좀 동쪽에 구들고래가 끊겨진 상태로 있는 것을보면 이곳에 굴뚝을 세웠던 것으로 생각된다고 하였다. 또 서쪽의 것은 서남쪽에 아궁이가 있는 ㄱ자형 구들로 구들규모는 동쪽것과 거의 같으나 ㄱ자로 꺾인 두 개의 길이가 거의 같고 구들고래의 뺨은선과 직각으로 꺾여 방안쪽에서 불을 때도록 한 것이 다르다고 하였다.

물론 이 ㄱ자형 구들의 아궁이에서 취사와 난방을 겸한 것인지, 아니면 한곳에서 취사를 하고 한곳은 난방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취사용아궁이는 따로 있었는지는 확실치 않다.

여하튼 철기시대에 들어와서 ㄱ자형 구들고래가 나타났다는 사실은 중요한 것으로, 특히 방안에 아궁이와 굴뚝자리가 있었다고 생각되는 것은 주목할 문제이다.

이는 다음 고구려 동대자주거지(高句麗 東臺子住居址)의 구들자리와 구당서(舊唐書) 신당서(新唐書)의 “장갱(長坑)”과의 관계 나아가 지금까지의 “온돌”에 대하여 새로운 의문점을 제기하게 되는 것이다.

3. 원삼국시대(原三國時代), (AD1~AD300)

원삼국시대(原三國時代)는 비록 뚜렷한 역사시대(歷史時代)로 생각치 않는 것이 일반 사학계(一般史學界)의 정설이겠으나 삼국사기(三國史記)나 삼국유사(三國遺事)와 중국측의 문헌들에 의하면 이미 마한(馬韓),진한(辰韓),변한(弁韓)등의 삼한(三韓)들과 고구려(高句麗),백제(百濟),신라(新羅)의 부족국가(部族國家)의 형태로 제나라대로의 정치, 사회제도를 이루면서 생활하였던 것이다.

이 시대의 주거, 나아가 취사와 난방시설에 대한 기록을 찾아보기 이전에 최근 조사 발굴된 전라남도 승주군 낙수리와 승주군 대곡리 유적 등 주암(住岩)땀수물지구에서 조사 발굴된 주거지들을 살펴보면 철기시대의 주거지들과 큰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낙수리(洛水里) 2호(號) 주거지(住居址)¹⁰⁾는 부각방형(扶角方形)의 형태로 된 평면으로 크기는 560cm×500cm, 깊이 5~35cm로서 남벽 서쪽 기둥구멍옆에 화덕자리(로지(爐址))가

8) 장경호, Op cit, p13.

9) 장경호, Op cit, p14.

10) 崔夢龍 “三國時代 前期의 全南地方文化 「震瀆學報」 제63호, 1987. 6.

나왔는데 이는 전시대(前時代)의 ㄱ자형으로 꺾인 것과는 달리 석기시대의 단순한 화덕자리와 큰 차이 없는 것이었다.

낙수리(洛水里)에서 조사발굴된 15기(基)의 주거지(住居址)들에서 창고시설이 각 주거지 사이에 독자적으로 만든¹¹⁾것을 볼 때, 상당히 발전된 주거문화를 이루고 있으면서 철기시대의 수원(水原), 서둔동 주거지(西屯洞 住居址)등에서 나타난 ㄱ자형의 부뚜막시설이 없는 것은 이지역까지 아직 전파되지 않았던 것으로 일단 해석할 수 있다.

즉 ㄱ자형의 구들이 고구려의 “장갱”(長坑)과 연결된다 할 때 따뜻한 삼한(三韓)지역에 까지 이구조가 전파되지 못한 것으로 추측할 수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원삼국시대(原三國時代)보다 앞선 철기시대에 이미 “ㄱ자형 구들”이 추운 북쪽 지방에 나타났었기 때문이다.

즉, 철기시대에 평안북도 로남리에서 2개의 ㄱ자모양의 꺾인 긴 고래온들이 발굴되었고, 이보다 늦은 시기라 하면서 평안남도 북창군 대평리의 온돌집자리를 거론¹²⁾하는 것을 보면 ㄱ자형의 구들은 추운지방에는 계승되어 왔으나, 따뜻한 한반도의 남부지방까지는 전파되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되는 것이다.

다음 문헌을 통하여 이시대의 취사, 난방시설을 고찰하면, 그간의 연구¹³⁾로서, 우선 이 시대는 움집(수용주거(堅宬住居)), 귀틀집, 고상주거(高床住居)의 세유형의 주거가 있었는데 이들 주거(住居)는 전시대 주거보다는 분명 발달된 건축이었음은 알 수 없으나 취사와 난방에 대하여는 잘 알수 없는 것이다.

다만 진서(晉書), 숙신씨조(肅愼氏條)에 숙신씨 일명읍루(肅愼一名挹婁),…하즉소거(夏則巢居), 동즉혈처(冬則穴處),…무정조 작와력수사오승이식…(無井竈 作瓦甔受四五升以食)이라 기록된바, 이로서 우물과 부뚜막은 없었으나 와력(瓦甔)을 만들어 4~5되의 쌀로 밥을 지어 먹었다는 것을 알수 있다.

와력(瓦甔)은 점토로 만든 렉(甔)인데, 이는 정(鼎)과 더불어 삼족기(三足器)인바 황화유역 중원문의 전형적인 물건이라 한다.¹⁴⁾

여름에 고상주거(高上住居)에 살고 겨울에는 움집에 생활한 읍루사람들은 일정한 부뚜막 없이 렉(甔)에 밥을 지은 것이라면 취사와 난방을 겸하여 불을 사용한것인지, 또는 취사단독이고, 난방시설은 없었는지 잘 알수 없으나, 읍루가 부여(扶餘)의 동쪽, 고구려의 동북쪽에 있었든 것을 생각하면, 겨울동안 비록 고구려의 장갱(長坑)과 같은 시설은 없었다 하더라도 어떤 난방대책은 있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읍루(挹婁)를 동이전(東夷傳)에 나타나고 또 후일 고구려의 영토에 포함된다 하여 한국주거사(韓國住居史)에 포함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고 다만 참고로 고찰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생각이다.

4. 삼국시대와 통일신라시대(三國時代와 統一新羅時代)

4.1 고구려(高句麗)

한반도(韓半島)의 북쪽과 만주지역의 추운지역에 자리잡았던 고구려(高句麗)는 타국(他國)과는 달리 일찍부터 취사와 난방시설의 발달을 보았던 것이다.

11) 崔夢龍, 孫寶基 教授停年退任紀念論文(발간예정)

12) 고구려 문화, P67.

13) 朱南哲 韓國住宅建築 一志社, 1980

14) 王承禮 宋基豪역, 발해의 역사 한림대학 아시아문화연구소 p39.

우선 취사시설로 나타난 것으로 안악제3호분,(安岳第3號墳) 일명동수묘(一名冬壽墓)의 부엌간 벽화를 들수 있는데, 이는 독립된 한채의 부엌에 부뚜막이 있고, 연기를 빼는 굴뚝이 측면벽에 뻗어나와 있다.

이 그림은 곧 “부엌”이 “고깃간”“차고”(車庫)등과 더불어 독립된 채 동(棟)로서 있을뿐 아니라 부뚜막 조(竈)이 난방용 아궁이와도 독립된 것으로 있었음을 말해 주는 것이다.

이러한 내용은 약수리고분의 부뚜막그림이 상당히 큰 부뚜막으로 고정된것임을 보여주는 것에서도 알수 있다. 이것은 또한 국립박물관소장의 철제부뚜막이나, 고구려의 도제(陶製) 부뚜막과 같이 이동하기 편리한 것이 조선시대의 “한데부엌”이나 풍로와 같이 고정부뚜막의 보조용으로 쓰일때가 많았음을 말해주는 것으로 판단되게 해주는 것이다.

또한 조선시대 부엌의 부뚜막이 안방온돌의 아궁이와 겸용으로 축소된것과는 달리 서로 독립된 것이었다고 추측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는 것이다.

즉 구당서(舊唐書), 동이전(東夷傳) 고려조(高麗條)의 빈구자다동(貧寡者多冬) “개작장갱하 연온화이취 난” (皆作長坑下燃溫花以取暖)에서 “장갱”(長坑)의 아궁이와 부뚜막이 겸용으로 축소되지 않고, 따로 건조되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따라서 지금까지의 “장갱”(長坑)이 조선시대 온돌처럼 실전체를 모두 구들로 하는 것으로 해석해온 것은 전시대의 ㄱ자형 구들과 함께 생각할 때 재고 되어야할 문제이다.

사실 철기시대의 ㄱ자구들의 유적과 고구려 중안의 동대자주거지(東臺子住居址)의 ㄱ자구들의 출현은 장갱=온돌(長坑=溫堞)(방 전체에 구들을 놓은것)을 부정하는 것이다.

집안 동대자주거지(輯安 東臺子住居址)는 귀족계급의 주거지로서, 살림방으로 쓰인 서쪽방에서는 두고래의 ㄱ자형구들과 직각으로 꺾인 아궁이가 방안에 있었고, 제당으로 쓰인듯한 동쪽방에서는 외고래 ㄱ자형구들이 있었으며 방안에는 얇은 구들장(2~5cm), 방밖에는 두꺼운 구들장(5~10cm)이 구들위에 깔려 있었고, 굴뚝은 방밖에 있었다.¹⁵⁾

이 ㄱ자형구들은 분명 철기시대의 ㄱ자형구들이 계승된것이라 생각되며, 이유적이 고구려 후기(高句麗後期)의 것임과 귀족계급의 것임을 생각할 때, 구당서(舊唐書)에서의 “장갱”(長坑)이 처음에는 가난한 사람들의 난방수단으로 쓰이다가 고구려후기에는 귀족계급에까지 전파되어 널리 쓰여졌던 것임을 알수 있다. 그리고 이때까지 구들이 방전체에 놓인 것이 아니라, 중국의 “갱”(坑)처럼 방일부에 놓이고, 아궁이도 방안에 있었던 것으로 조선시대의 온돌과는 다른 것이었음을 알 수 있다.

4.2 백제(百濟)

백제의 취사와 난방시설에 대한 기록이나 유적(遺蹟), 유물(遺物)들은 거의 없는 것임을 그간의 연구(研究)로 잘 알려진 바이다. 또한 삼국유사(三國遺事), 권이남부여 전백제북부여 조(卷二南扶餘 前百濟北扶餘條)의 “우사자우애우유일석(又泗池又崖又有一石) 가좌십여인(可坐十餘人) 백제왕옥행왕흥사례불(百濟王欲幸王興寺禮佛) 선어차망배불(先於此望拜佛) 기석자난인돌석”(其石自煖因堞石)의 “돌석”(堞石)이 아무런 주(註)없이 쓰인 것으로 보아 사체 시대(泗池時代)에는 고구려(高句麗)의 장갱(長坑)이 남쪽 지역까지 널리 퍼졌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중국에서는 “장갱”(長坑)으로 표현한 것이 이곳에서는 “돌”(堞)로 표현되어 후일의 “온돌”(溫堞)로 이어짐을 말해주는 것을 알수 있다.

한편, 부소산성내 제3호건물지(扶蘇山城內 第3號建物址)¹⁶⁾에서 구들, 부뚜막의 시설이

15) 고구려 문화, pp68-69

16) 張慶浩 “우리나라 暖房施設인 溫堞(구들)形成에 대才한 研究” 考古美術 165號

1980년대 발굴 조사됨으로서 이를 더 적극적으로 뒷받침해주는 것이다.

즉 이구들은 “길이가 3.7m로서 내부에서 2.3m, 외부에서 1.4m이고 아궁이에서는 수혈북벽 가까이 까지는 바닥이 약 30cm정도 높아지고 여기서 외부끝까지는 약 50cm 갑작이 높아지고 있다.” “외단”(外端)에 굴뚝을 쌓아 올렸든 흔적은 없었고 연도(煙道)의 개석(蓋石)은 모두 없어졌다”고 한다.¹⁷⁾

이 유적은 고구려의 ㄱ자형구들이 아마도 기후적인 문제나 기타 이유로 일직선상의 구들로 변화하였으나,(다른 곳에서는 ㄱ자형이 있었을 가능성도 있다) 고구려에서처럼 아궁이가 실내에 있고, 또 구들과 직각방향에 있었음을 알수 있다.

다시말해 고구려의 “장갱”(長坑)이 백제(百濟)에 전파된 것은 틀림이 없는 것이다.

4.3 신라 및 통일신라(新羅 및 統一新羅)

지금까지의 주택사연구(住宅史研究)에서 밝혀진 바로는 이시대의 난방시설에 대한 자료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다만 중국의 신당서(新唐書), 동이전(東夷傳), 신라조(新羅條)에 “...동즉작조당중 하이식영상”(冬則作竈堂中 夏以食永上)이라 한기록으로 신라에서는 여름에는 옥외에서 취사를 하고, 겨울에는 옥내의 부뚜막에서 취사를 한 것으로, 이는 안압지출토(雁鴨池出土)의 풍로가 뒷받침해주는 것이었으며, 그렇다하여 곧 온돌의 존재를 부정할 수는 없다는 것이었다.¹⁸⁾

또 삼국사기 권제3,(三國史記 卷第) 신라본기 제11(新羅本記 第 11)에 “헌강왕대년구월구일,(憲康王大年九月九日) ...복옥이와,(覆屋以瓦) 불이저 취반이탄 불이신...”(不以茅 炊飯以炭 不以薪)이라 기록된 것으로 보아 헌강왕대(憲康王代)인 9C말경 경주의 민가(民家)에서는 숯으로 밥을 지은 다시말해 풍로를 많이 사용하였음을 알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모든 사실은 통일신라(統一新羅)가 삼국(三國)을 통일(統一)함으로써 자연스럽게 고구려와 백제의 난방시설이었던 온돌(장갱(長坑))과 부뚜막구조를 계승하게 되었고, 이들이 다음의 고려왕조(高麗王朝)에 자연스럽게 계승시키는 계기가 된 것은 너무나 명백한 것이다.

5. 고 려 (高麗)

고려(高麗)는 추운지방에서 발생, 사체(泗체)를 포함한 남부지역(南部地域)까지 전파되었던 장갱(長坑)과 따뜻한 신라(新羅)에서 널리 쓰여졌던 마루구조를 그대로 계승 발전시킨만큼 이때에 우리나라의 취사와 난방설비의 대부분이 그 기틀을 잡았다고 생각된다.

우선 고려도경(高麗圖經) 권(卷)28, 공장일와탑조(空張一臥榻條)에 “와탑지전 경시왜탑(臥榻之前 更施矮榻) 삼면입란순 각시금 기인옥부가대석완점지안... (三面立欄楯 各施錦 綺茵褥復加代席莞簟之安) 약민서즉다위토탑 혈지위화갱 와지...”(若民庶則多爲土榻 穴地爲火坑臥之)라 한 것으로 보아 귀족계급에서는 “와탑”(臥榻)같은 것을 많이 사용하나, 서민주택에는 “구들(화갱(火坑))”이 널리 전파된것임을 알수 있다.

그리고 이문헌에서 “장갱”(長坑)이 아니고 “화갱”(火坑)으로 표현하고 “토탑”(土榻)이라 한

韓國美術史學會, 1985.

17) 張慶浩, op cit.

18) 朱南哲, op cit., pp36-38.

것으로 보아 이제는 고구려(高句麗)의 장갱(長坑)처럼 폭이 좁고 길이가 긴 갱(坑)이 아니라 폭이 상당히 넓어진것임을 추측할 수 있다.

또한 최자(崔滋)(1188~1260)의 보한집 권하(補閑集 卷下)에 소개된 묵행자(默行者)에 관한 이야기중 “빙돌”(氷塊) “온기돌”(溫其澗) “돌구”(澗口)등으로 온돌이 13C초에는 널리 쓰여지고 있었음을 밝혀진 바이다.¹⁹⁾

그러나 이 문헌 “...행자래관지무희온색 서출호 습석력 전돌구니기회도극이상...”(行者來觀之無喜慍色 徐出戶 拾石礫 填塊口泥其灰塗隙而上)의 구절중, 천천히 문을 나가 돌과 자갈을 주어 “아궁이(돌구(塊口))”을 막고, 진흙으로 재가 떨어지는 구멍까지 막았다는 것은 바로, 아궁이가 방 밖에 있었음을 말하는 것이며 조선시대의 온돌구조와 별다름이 없었다는 것을 주의하지 않았던 것이다. 즉, 고구려,백제에서와 같이 실내의 한쪽에 “갱”(坑)이 만들어지고, “아궁이”또한 방안에 만들어 졌던것에서 13C에는 이미 방밖에 만들어지고 있었음을 말해 주는 것이다.

온돌이 실전체에 만들어진다는 추측은 이인로(李仁老)(1152~1220)의 동문선 공주동정기(東文選 公州東亭記)에서 “동이옥실”(冬以燠室) “하이량청”(夏以涼廳)에서 “옥실”(燠室)이 더운방의 뜻으로서 온돌방을 말해준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²⁰⁾

위에서의 “더운방”의 뜻을 갖인 “옥실”(燠室)은 이제현(李齊賢)이 1344년 9월 저술한 익제란고(益齊亂藁) 권(卷)6, 기(記), 중수건동선사기(重修乾洞禪寺記)에서도 “동방옥실요이랑자 소이처승야”(洞房燠室窈而廊者 所以處僧也)라 기록하였다.

한편 이규보(李奎報)가 1237년에 저술한 동국이상국집(東國李相國集) 후집(後集) 권칠(卷七) 난돌조(暖塊條)에 “동월와영돌 한위래괄골 행금소졸읍일사염이발 인온기여준...”(冬月臥永塊 寒威來刮骨 幸今燒拙揖一束炎已發 氤氳氣如春) 기록에서 불을 때지 않은 구들을 “빙돌”(氷塊)이라 표현(表現)하였고 이색목은집 권이(李穡牧隱集 卷二) “...안주강 숙의주참동상방 야반중돌결쳐 소도벽지풍생실명...”(安州江 宿義州站東上房 夜半從塊缺處 燒塗壁紙風生室明)의 기록에서는 불뎀 구들로 “화돌”(火塊)이라고 아무런 주(註)없이 기록한 것을 보아서 구들을 놓은 방(房)이 널리 축조되었으며 이런방을 옥실(燠室)이라 불렀고, 도배를 하여 마감하였음을 알수 있다.

한편 난방기구로 “온로”(溫爐) “박산로”(博山爐) “정로”(鼎爐)등이 사용되었던 것을 고려도경(高麗圖經)을 통해 알수 있으며 이는 보한집(補閑集) 권하(卷下) 이십육(二十六) “...유공기자원,(柳公器子源) ...로퇴봉탄후가난...”(爐堆鳳炭候家暖)의 기록으로 입증되는 것이다.

고려시대의 부뚜막이나 이와 관련된 자료들은 거의 없기 때문에 확실한 결론을 지을 수 없다.

그러나 온돌의 발달은 부뚜막의 발달을 가져왔음에는 틀림이 없으며 더욱이 고려도경(高麗圖經) 제(第)22권(卷) 잡속일(雜俗一), 제(第)23권(卷) 잡속이(雜俗二), 제(第)28권(卷) 공장(일)(供張(一)), 제(第)30권(卷) 기혈(일)(器血(一)), 제(第)31권(卷) 기혈(이)(器血(二)), 제(第)32권(卷) 기혈(삼)(器血(三)), 제(第)33권(卷) 단즙(丹楫) 궤식조(饋食條) 등을 볼 때 또 채소 요리, 차, 병과류가 크게 발달하고 새로운 음식이 들어왔다²¹⁾는 것은 주방문화(廚房文化)의 발달을 의미하는 것으로 능히 부뚜막의 발달을 짐작할 수 있다.

한편 주방에 대한 기록으로는 익제란고(益齊亂藁) 권(卷)6, 기(記), 중수개국률사기(重修開

19) 朱南哲, op cit., p43.

20) 朱南哲, op cit., p44.

21) 尹瑞石, “食生活의 傳統樣式”, 「傳統的 生活樣式의 研究(中) 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82.

國律寺記)에서 “…기서즉학도지사감사지당(其西則學徒之舍監舍之堂) 일주일고(日廚日庫), 각유수위(各有修位), 약이주검이고(約而周儉而高), 작즉왕계가구(酌卽往計可久), 증손이적의자야(增損而適宜者也), …¹⁸⁾ 라 하였고 또 동서(同書) 권(卷)6 기(記), 묘련사중흥비(妙蓮寺重興碑)에서 “…혹가기력(或加其力), 유침유당(維寢維堂) 유주유랑(維廚維廊), 료자신경자립부결자역결자보(撓者繕傾者立腐缺者易缺者補), 치상설지의(侈像設之儀) 섬제주지비(瞻齊廚之費), 익수청송(益樹青松), 료이숭용(繚以崇墉)…¹⁹⁾ 이라 하였으나, 이 기록만으로는 부뚜막의 내용을 알수 없다.

다만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볼 때 사찰(寺刹)과 같은 민가(民家) 아닌곳에서는 부엌간이 바로 있어 취사용 부뚜막이 있었고, 또 온돌방만을 위한 아궁이가 별도로 되어 있었을 수 있으며, 반대로 위 사찰기록에서 “그 서측에 학도사(學徒舍)와 감사당(監舍堂)이 있고, 주(廚)와 고(庫)라 한다²⁰⁾ 는 것으로 보아, 부뚜막과 온돌방 아궁이가 겸용으로 된 것이 이미 축조되었다고도 할수 있다.

이러한 추측은 조선시대 초기건축인 강육(江陸) 오죽헌(烏竹軒) 몸채의 유구(遺構)에서 당시의 부엌 부뚜막과 안방 아궁이가 하나로 된 것을 찾아 볼 수 있었든바, 비록 그 몸채가 많은 중수를 하였다하더라도 그러한 제도는 오랜 생활습관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과히 틀린 추측은 아닐 것이다.